

碩 士 學 位 論 文

日 本 語 「 の だ 」 構 文 研 究

指 導 教 授 金 勝 漢



濟 州 大 學 校 教 育 大 學 院

日 語 教 育 專 攻

李 栽 洪

2005年 2月

日本語「のだ」構文 研究

指導教授 金勝漢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4年 11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李裁洪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4年 12月

審査委員長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국문초록>

日本語「のだ」構文 研究

李 裁 洪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勝漢

일본어에 있어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말형식(文末形式)의 하나로 「のだ」의 표현이 있다. 「のだ」의 유무의 차이에 따라 일본어의 담화나 문체에 있어서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또한 「のだ」문에 있어서도 문체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뿐 만 아니라, 그 의미의 표현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のだ」문에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의미와 용법이 있는 것이다. 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문장 의미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のだ」문의 특성과 세부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바로고 정확한 일본어 사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긍정문 「のだ」, 3장에서는 부정문의 「のではない」, 4장에서는 의문문 「のですか」로 각각 나누어 그 의미와 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のだ」문의 표현에 있어서는 비(非) 「のだ」문과는 달리 어떤 상황을 인식하여 그것을 이해하려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분으로 「のだ」문이 유발된다고 본다. 화자는 「のだ」문을 통해 어떤 원인, 사정 등 화자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언어로

※ 본 논문은 2005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のだ」의 세부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자기주장, 해석, 원인, 이유, 환언, 발견, 재인식, 화제제시, 명령·인식강요 등의 다양한 것이 내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정문의 「のではない」의 의미로는 화자의 설명적 판단이 적절치 못함을 의미하며 부분부정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ではない」는 어떤 사항(명제)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부정을 나타낸다.

셋째, 의문문 「のですか」의 의미는 어떤 사태가 일단 일어난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그 상황이나 문맥과 관련시켜 그의 사정이나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에 나타나는 표현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のですか」의 의문문은 어떤 문장이나 담화과정에서의 상황이나 선행문맥등과의 관련시키면서 그의 사정이나 의미를 물어보는 기능과 질문의 포인트를 확장시켜주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부정의문문의 「のではないか」의 의미는 어떤 명제의 옳고 그릇됨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 명제가 사실이거나, 옳다고 생각하되는 것을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담아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의 검토	3
II. 긍정문 「のだ」	8
1. 설명	8
2. 발견	16
3. 재인식	18
4. 화제제시	20
5. 명령, 인식강요	22
III. 부정문의 「のではない」	23
1. 부정과 「のだ」의 표현방식	23
2. 「のではない」의 의미	25
IV. 의문문의 「のですか」	29
1. 「のですか」의 의미	30
2. 「のではないか」의 의미	38
V. 결 론	41
参考文献	43
Abstract	47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일본어의 회화체와 문어체의 문말(文末)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 형식에는 「のだ」가 있다. 일본어의 문말표현 「のだ」는 문체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뿐 만 아니라, 그 의미의 표현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그의 의미나 용법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외국인에 있어서 그것을 배우기는 더욱 어렵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지금까지 「のだ」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のだ」의 유무의 차이에 따라 일본어의 담화나 문체에 있어서 의미상 서로 달리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어 학습자에게는 배우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면서도 회화 등에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단지 문법적으로 동사나 형용사와 접속할 경우에 「のだ」가 되고, 형용동사의 어간이나 명사와의 접속시에는 「なのだ」가 된다는 접속방법²⁾만 알고 「のだ」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일본어 학습자가 많이 있지만, 「のだ」문에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의미와 용법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문장

2) (예시) 新しい感じを、見るたびに心にあたえるのです。(中2 : p76)
インホさんは、今忙しいんですよ。(高2 : p68)
むしろこのことはよいことなのである。(高2 : p36)

의미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 a : あのう、リーさんは来年日本で研修しますか？

b : はい、そうです。(いいえ、そうではありません。)

(2) a : あのう、リーさんは(日本の)会社で研修するんですか？

b : はい、1年めは大学で勉強して、2年めに会社で研修を受ける予定なん
です。(中級 I : p10)

(1)에서는 단지 내년엔 일본에서 연수생활을 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 지나지 않지만, (2)에서는 이와는 달리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상황)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며, 또한 그에 따른 대답도 일본에서 연수를 받게 되는 상황과 관련지어 그 내부의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のだ」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2a)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사태나 상황에 대한 설명제시를 요구하는 「のだ」의문문이며, (2b)는 질문에 대한 사태나 상황에 대한 대답으로써 「のだ」문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のだ」문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놓여 있는 장면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 의미와 용법을 이해하기는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의 목적은 「のだ」문의 의미와 용법을 고찰함에 있어서 문의 종류를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으로 분류하면서

첫째, 「のだ」문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그것들의 세부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둘째, 「のだ」문의 유무에 따른 의미상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예

문을 통하여 예시하고 그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로는 긍정문의 「のです」, 「のである」 「んだ」 「んである」 「んです」, 부정문의 「のではない」 「んじゃない」, 의문문의 「のですか」, 「んですか」 「のか」 등을 포함하여 살펴본다.³⁾ 그러나 「のだ」의 종지적(終止的)인 용법에 한정하여 살펴보기 때문에는(て), ので, のだったら, ののだが, のだから 등의 종속절에 있어서의 「のだ」 문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하고자 한다.

여기서 「のだ」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예문들은 일본의 각 문헌에서 발췌하였으며, 거기에서 적절한 예문을 찾지 못하거나 지극히 일반적이고 간단한 예문들은 문형사전의 예문과 학자들의 예문을 임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다.

1.2 선행연구의 검토



지금까지의 연구발표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のだ」의 품사에 관한 연구와 「のだ」의 의미·용법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1.2.1 「のだ」의 품사에 관한 선행연구

3) 문의 종류에 따라 문체의 변형형태를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そんな日が絶対来ないとも言い切れないのだ。 (朝日: 04.04.02)
- 「とれた?」私が声をかけると、「いないんだ。」 (高1: p132)
- あたし、悲しいから泣いたんじゃないよ。 (野田: p33)
- 日本は外交戦略を見失っていたのではない。 (朝日: 03.12.13)
- リーさんは大学に通いながら、会社で研修するんですか。 (中級 I :11)
- 世の中に神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か、無いんですか。 (田野村,1993)

「のだ」의 품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여러 연구자의 견해는 크게 보면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 「のだ」는 다음의 (3)에서와 같이 명사화의 기능을 갖는 형식명사의 「の」에 「だ」가 뒤에 붙어 이것이 일어화(一語化)된 것이라는 견해이다. 「のだ」라는 형식이 갖고 있는 독자의 의미·기능이 고찰되어지고 있고, 하나의 형식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3) 命はすべてその中に欠如を抱きそれを他者から満たしてもらうのだ。

(高2 : p27)

橋本進吉는 「のだ」의 「の」를 준체조사라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다른 말에 붙여서 혹은 의미를 가하여 전체로서 체언과 같은 기능을 지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⁴⁾

佐治圭三도 「구체적인 의미가 없이, 형식상의 체언으로써, 위의 문를 받아들이는 역할」를 하는 준체조사로 보고, 이 준체조사 「の」에 「だ」를 뒤에 붙인 것이 「のだ」라고 하고 있다.⁵⁾

둘째, 「のだ」는 설명의 무드(mood)⁶⁾를 지닌 조동사로써 보는 견해이다.

寺村秀夫(1984)는 「はずだ」 「わけだ」 「ところだ」 「ことだ」 「もの

4) 橋本進吉(1948), 「國語法研究」 岩波書店 p72

5) 佐治圭三(1991), 「「ことだ」と「のだ」- 形式名詞と準体助詞 - (その二)」, 日本語・日本文化3 大阪外國語大學研究留學生別科

6) 문은 객관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과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전자를 명제라 하고, 후자를 무드(mood)라 한다.

だ」와 함께 「のだ」를 다루고 있는데, 「ことだ」「ものだ」인 경우에는 명사 「こと」+「だ」、명사 「もの」+「だ」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こと」나 「もの」의 의미와 무드(mood)조동사화한 경우에서 그것의 의미는 쉽게 구별이 되지만, 「のだ」의 경우에는 그 구별이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다. 무드조동사로서의 「のだ」의 의미는 ‘설명’의 「のだ」로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일반적인 말로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범위가 넓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조동사적 관점은 「のだ」가 무드조동사로 문말에서 화자(저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공통으로 한다.

셋째, 「のだ」를 스코프(scope)⁷⁾의 「のだ」와 흔히 말하는 무드(mood)의 「のだ」가 있다는 견해이다.

野田春美(1997)는 「の」의 명사성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の」에 「だ」를 붙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일어화(一語化)되고 다시 변질되어 설명의 조동사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의 두 종류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のだ」의 용법을 보다 구문적인 색채가 농후한 스코프(scope)의 「のだ」와 좀 더 의미적인 색채가 농후한 무드(mood)의 「のだ」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고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분법은 「のだ」의 명사성의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のだ」문의 기본적인 성질에 상당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이에 대해서는 久野暲(1973)가 부정문 「ない」와 의문조사 「か」의 스코프에 대한 연구한 바 있다. 예를 들어 悲しいから泣いたのではない。의 예문에서 「の」는 悲しいから泣いた를 명사화하는 기능을 하며, 부정의 스코프(scope)는 悲しいから泣いた가 되며, 부정의 포커스(focus)는 悲しいから가 된다.

1.2.2 「のだ」의 의미·용법에 관한 선행연구

「のだ」의 의미·용법에 대해서는 「설명」의 「のだ」라고 흔히 말해지고 있는데 久野暲(1973), 山口佳也(1982), 永野賢(1951), 田野村忠温(1993)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연구자가 있다.

이들의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면

久野暲(1973)는 「のだ」의 의미를 설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는 「のです」는 말하는 이가 먼저 말한 것, 행한 것, 또는 말하는 이의 상태에 대하여 말하는 이가 설명을 해 주는 것이라 하고, 「のですか」는 말하는 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듣는 이로부터 설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⁸⁾

山口佳也(1982)는 <のは ~のだ>라는 형식을 「のだ」의 기본형이라고 하면서 「のだ」를 단정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⁹⁾

永野賢(1951)는 「のだ」의 설명에 대한 의미의 세분화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유>·<원인>을 예시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며, 益岡(1989)는 「のだ」문을 <과제제시와 그 과제에 대한 설명을 제시>의 관계로 파악한다. 그리고 田野村(1993)도 「のだ」문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상황의 <배후사정>을 표현한다고 보고 있다.¹⁰⁾ 예를 들어 「Bのだ」의 문은 선행문의 A을 받아서 그것의 배후의 사정이나 실정을 나타내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고 있다.

渋谷倫子(1996)는 「のだ」에 대한 이와 같은 다수인의 세부적인 의미용법을 재검토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공통되는 단일의 의미기능

8) 久野暲(1979), 「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p143

9) 山口佳也(1982), 「のだ」の文について, 論集日本語研究7, 有精堂 p223

10) 田野村忠温(1993), 「「のだ」の機能」, 『日本語学』(10月号), 明治書院. p36

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추론해가는 귀납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のだ」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그는 화자와 청자사이의 공유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의 제시>라는 표현으로 「のだ」의 특성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¹¹⁾

이 논문에서는 「のだ」의 의미와 용법을 고찰함에 있어서 설명이나 상황과의 관련, 배후의 사정, 과제 의 제시 등의 단일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의미가 어떠한 경우에 표현되는가를 예문을 통해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11) 渋谷倫子(1996),もう一つの現実を表す「の」,日本語教育91号,日本語教育学会 p25

II. 긍정문 「のだ」

「のだ」 문은 담화나 문장 속에서 선행 또는 후행문과의 관련하여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설명을 하거나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のだ」 문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면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그 세부적인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분류하고 그에 대한 용례를 들면서 고찰하여 본다.

2.1 설명

「のだ」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설명’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의미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 논문에서는 「のだ」문의 의미 중 설명에 속하는 부류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1.1 자기주장

(4) 「黒四のプランは、もともとむりだったのだ。」

「北アルプスにトンネルをほるなって、常識では考えられないことだ。」

(小5: p64)

(5) 時計は十一時半に近くなっていた。残された時間はあと二十四時間と少ししかない。何をするかきちんと決める必要があるのだ。

(6) ぼくは、このオルメカ文化をもたらした人々こそ、はるばる西アフリカの海岸から船で大西洋をこえてやってきた黒人(ニグロ)たちであったと考えるのです。

(小5 : p60)

(7) メリー : やっぱりソウルは暑いわね。

清 : いや、ソウルが暑いというよりソラク山のほうがすずしいんだよ。

(日本語Ⅱ: p98)

(8) そこからは、二十五万八千キロワットの電力が産み出され、わが国の産業に大きな利益をもたらしている。それが人間のちえと力の結晶であることを、わたしたちはほこりに思うのだ。

(小6 : p80)

(4)~(8)은 「のだ」문을 통하여 화자가 자기의 주장을 표현한 것이다. 즉, (4)는 화자가 북알프스에 터널공사는 원래부터 무리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5)는 시간이 흘러 이제 몇 시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뭔가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화자의 주장을 「のだ」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6)은 오르메카 문명을 잉태시킨 사람들은 다름 아닌 흑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7)에서는 서울이 덥다는 말에 화자는 설악산이 너무 추워서 상대적으로 덥게 느낀다고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다. (8)은 거대한 댐의 건설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산업에 큰 이익을 가져옴은 물론 인류의 지혜와 힘의 결정체로써 자부심을 느낀다고 화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4)~(8) 「のだ」문은 선행문이나 또는 어떤 사태에 대해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이 정당함을 나타내는 문으로서 화자는 자신의 주장을 「のだ」문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음을 알수가 있다.

2.1.2 해석

(9) からもりと晴れあがった日には、わたしたちの気持ちもさわやかになります。じめじめした雨の日には、わたしたちの気持ちもめいりがちです。急に寒くなれば、かぜを引きやすく、暑さが続けば、胃腸をこわしやすくなります。天気は、わたしたちの気分や体のぐあいにも関係があるのです。

(小4 : p6)

(10) カブトガニは、全長約六十センチメートル、するどいつぎのようなしっぽを持ち、頭にかめしいかぶとのようなからをかぶっているので、このような名前が付いたのでしょう。

(小4 : p56)

(11) キョウリュウは、この新しい時代にうまく合った生活のできる獣たちに世の中をゆずって、死にたえてしまったのです。

(小4 : p72)

(12) わたしたちは、機織りです。今までどこの国にもなかった美しい織り物を織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織り物は、不思議な織り物で、普通の人の目には見えますが、自分の役目に向かない役人や、大ばか者には、少しも見えないのです。

(小4 : p44)

(13) みつばちは、一つの巣に、何万びきも一緒に住んでいて、おたがいに事件を分け合い、助け合って生活しています。みつばちのうち、女王ばちはたまごを産み、働きばちは、巣を作ったり、幼虫を育てたり、みつを集めたりします。みつばちの生活には、いろいろと、めずらしいことがあるのです。

(小4 : p61)

(9)은 「のだ」문을 사용하여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즉 날씨는 우리들의 기분이나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10)는 카프토카니라는 거북이의 이름이 자신의 모양이나 생김새에서 붙여졌다고 필자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기술하고 있다. 또 (11)은 공룡이 사멸하게 된 이유를 나름대로 일련의 이유를 들면서 해석하고 있으며, (12)에 있어서는 옷감장수가 이상하고 멋있는 옷감을 팔기 위해 옷감의 특성이 어떻다는 것을 임금님에게 자세하게 피력하는 내용이다. (13)는 꿀벌의 생활이 다양하고 희귀한 것이 많다는 내용을 나열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해석이라는 의미는 어떤 사물의 뜻이나 내용 따위를 자신의 논리에 따라 이해한다거나 이해한 것을 풀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설명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のだ」 문에 통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1.3 원인



(14) 当時、ポーランドは、ロシアの領土にされていて、ポーランド人がポーランド語で勉強することさえ不自由な時代だった。自己の才能を生かして、上の学校へ進むことは、国内では、とうてい思いもよらなかった。
進んだ学問をしようと思えば、外国へ留学するほかはなかったのである。

(小6 : p70)

(15) 途中でおやめになったんですか?

目を悪くしましたから中年からは好きな釣りも投網もできませんでした。

(高1 : p53)

(16) 彼はじろりと私のほうを見て、

「おれが打ってかからないんだから、ここには一匹もいないんだよ。」

(高1 : p56)

(17) マリーは、会った人がだれでもおどろくほど、青い顔をしていた。強い酸性の

けむりと放射能とが、しだいにマリーの健康をむしばみ始めたのである。

(小6 : p74)

(18) 僕は、むっとり黙って外へ出た。すると、とたんに頭に冷たいものが落ちてきた。いつの間にか雨が降りだしていたのだ。

(高3 : p48)

(14)는 폴란드 사람이 좀 더 공부하려면 외국에 나가 유학하지 않으면 안되는 원인은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영토로 폴란드 말조차도 배울 수 없는 자유스럽지 못한 시대적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のだ」문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15)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그렇게도 좋아하던 낚시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에 대하여 말하는 이는 의문문의 「のだ」문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16)의 「のだ」문은 자네가 같이 어망을 잘 거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사실을 「のだ」문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17)에서는 마리의 얼굴이 과량게 창백해지기 시작한 것은 방사선 등으로 인하여 그녀의 건강을 해치기 시작하기 때문으로 표현하였다. (18)에서는 갑자기 머리에 차가운 무엇이 떨어지는 가 했더니 알고 보니 그 원인은 어느새 비가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のだ」문을 통해 사태의 현상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4)~ (18)에서처럼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근본이 된 일이나 까닭을 「のだ」문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2.1.4 이유

(19) 昨日は学校を休みました。頭が痛かったんです。

(庵 2003 : 282)

(20) (デパートで泣いている子供を見て) きっと迷子になったんだ。 (同)

(21) 清 : さっきからさがしてたんだ。今までどこに行ってたの?

明 : 図書館で宿題やってたんだ。 (日本語Ⅱ:54)

(22) 美香 : パンダはかわいいでしょう。

インヒェ : そうですね。だから、みんなパンダの前からはなれないんです。

(日本語Ⅱ:142)

(23) さあね、自分で叔父さんに聞いてごらん。

母は冷淡に答えた。どうせガッチリ屋の叔父に、そんなことを僕が言いだせこ

ないことは、よく知っているのだ。 (高3 : p48)

(19)에서는 ‘머리가 아팠다’ 라는 것을 ‘어제는 학교를 쉬었다’라는 선행문의 이유로서 「のだ」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20)은 ‘백화점에서 어린이가 울고 있다’ 라는 상황에 대하여 이는 분명히 그 애가 길을 잃어 미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말하면서 「のだ」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21)에서는 아까부터 너를 찾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느냐는 물음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느라 집에 없었다는 변명으로 그 이유를 말한 예이며, (22)의 「のだ」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팬더곰 옆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만큼 팬더가 귀엽기 때문이라는 것을 화자는 그 상황에 대한 이유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3)의 예에서도 네가 알아서 숙부에게 물어보라고 쌀쌀하게 대답한 이유를 「のだ」문의 사용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のだ」문이 의미상으로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의 결과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까닭이나 사유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자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구실이나 변명에 대한 설

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앞에서 말한 원인이 객관적인 논리에 기초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유는 행위자의 심리적 원인이 두개의 사건 중에 개재하며 행위자의 주관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설명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1.5 환언

(24) 明日は入社式だ。明日からは会社員なのだ。 (庵 2001 : 285)

(25) 自由型があるということは、他の競泳の泳ぎの方には、不自由、つまりは制約があるのだろう。 (朝日:04.8.22)

(26) ラジウムは、私すべきものではありません。

それは、一つの元素です。人類すべてのものなのです。 (小6 : p43)

(27) つまり、このダンスは、みつのある場所までの距離や方角を表しているのです。

働きばちは、こうにたダンスの動きによって、花のある場所を知ると、勢いよく、そこに向かうのです。 (小4 : p45)

(28) そのあいだ、ほかのつるたちは、たがいにすどく鳴きかわしながら、空の上の一つところを飛んでいました。助けられたなかまのつるがのぼってくるのを、そろって待っていたのです。 (小6 :82)

(24)~(28)도 「のだ」에 의해 선행문 또는 상황(문맥)에서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그 의미는 선행하는 문의 내용을 환언해서 표현한 것이다. 즉 선행하는 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다시 재설명하거나 부연 해석하는 것이다. (24)의 문에서는 ‘내일은 입사식이다’ 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일부터는 사회인이다’ 라는 사실로

후행문에서 「のだ」문을 사용하여 환언하여 표현한 것이고, (25)의 문은 수영종목에서 자유형이 있다는 말은 그 외의 종목에서는 수영 방법에 제약이 있다는 말로 달리 표현된 것이고, (26)에서는 라퐁은 개인이 사유화할 것이 아니라 선행문은 라퐁은 인류 모두가 공유하고 향유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のだ」문 사용하여 달리 환언한 표현이다. 그리고 (27)는 일별이 날아가는 형태에 따라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알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일별이 찾아갈 꽃의 방향과 거리에 따라 일별이 날아가는 형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환언적으로 「のだ」문을 사용하여 부연 해석한 것이다. (28)는 서로 힘차게 외치면서 공중을 돌면서 기다리고 있는 학들의 모습(선행문)에 대하여 피해당한 학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のだ」문을 통해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선행하는 문과 「のだ」를 포함하는 문은 서로 의미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환언의 용법은 문어체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 경우 「のだ」의 문 앞의 내용을 「のだ」의 문으로 요약되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앞 부분에서 알지 못했던 사실을 「のだ」문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된다.

지금까지 「のだ」문은 그 의미가 <설명>이라는 전제하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국 이처럼 「のだ」문이 나타나게 되는 데에는 어떤 상황을 인식하여 그것을 이해하려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분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즉, 문장이나 대화의 흐름에서 화자는 「のだ」문을 통해 어떤 원인, 사정 등 그럴만한 이유라든가 자기의 주장이나 해석 등을 화자가 처

한 상황과 관련하여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발견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9) (掲示板を見て) 明日会議があるんだ。 (庵 2001 : 285)

위의 (29)는 그 의미가 「설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のだ」의 모든 의미·용법을 설명이라는 표현 하나로 취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한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예문 몇 가지를 더 살펴보자.

(30) インホ : (つくえの上においてある会員証を見て)

明君、テクオンダーを習っているんですか。

明 : はい。でも、まだ習いはじめたばかりなんです。 (日本語Ⅱ:26)

(31) 「なんにも着てやしないと、あの子が言っている。本当に、なんにも着てはいないんだ。」と、人々は口々に言いました。とうとう、ひとり残らず、「本当に、なんにも着てはいないんだ。」 (小4 : p74)

(32) マリー、これはたいへんなことだよ。この鉱石の中に、だれも知られなかった新しいものが入っているんだ。よし、二人で、それをみつけ出そう。 (小6 : p42)

「のだ」문이 선행문 또는 상황과의 관련에서 발견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29)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회의가 게시판을 보고 내일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에 대해 「のだ」문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0)는 인호는 책상위에 놓여 있는 회원

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내용의 정보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34b)처럼 「のだ」문을 사용하여 표현되고, 그렇지 않는 (34a)는 비문이 된다.

(35) a : うちの裏の、あの山を一つこえれば、海が見える。(中1 : p6)

b : ああ、海が見えるんだよ。

예를 들면 (35a)의 문은 단순히 ‘바다’가 발견됐다(눈에 들어 올 것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임에 대하여 (35b)의 문은 놀랍게도 예상외로 ‘바다가 보이는 것’을 발견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35b)의 문은 전원 빌라 등을 매입하려고 할 때, 한번 찾아가서 들어가 커튼을 열어보니 시원하게 바다 풍경이 펼쳐져 있어 보일 때 적절한 표현인 것이다. 이 경우에 발견한 것은 ‘바다’이라는 사물이 아니라, 창밖의 바다가 보이는 것이 그 ‘빌라의 속성’인 경우에 「のだ」문이 쓰여 지는 것이다.

2.3 재인식

(36) この先生のことばを聞いて、ぼくは、一しゅん、耳を疑った。ああ! あのいやなやつらめ。やつらが役場にけいじしておいたことは、これだったのだな。

(小6 : p98)

(37) (会社を出ようとしたら雨だった)今日は夕方雨が降るんだった。

(庵 2001: 285)

(38) 「また、何かあるのかな?」

いつもだと、授業の始まるころは、たいへんさわがしくて、机の上げ板を開ける

音、閉める音、宿題に出された暗記ものをまちがいなく言えるように、てんでに耳をふさぎながらくり返し暗唱する大きな声、先生が、大きな定規で机をたたく音、そして「少し静かに!」という先生の声などが入り交じって、道路の方まで聞こえてくるのだった。

(小6 : p98)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재인식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는 (36)에서와 같이 동사의 과거형에 「のだ」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37)~(38)에서 처럼 「のだ」 자체가 夕形인 형태 즉 「のだった」形을 취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한 재인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36)에서는 내일부터는 독일말 이외는 가르칠 수 없고 오늘 이것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선생님 말을 들으니 조금 전 등교시 면사무소 앞을 지날 때 조그만 게시판 옆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와 보니 알 수 있겠다는 의미로 동사의 과거형에 「のだ」를 사용하였다.

(37)에서는 외출하기 전에 저녁에는 비가 온다는 기상예보를 들었지만, 그것을 잊고 있다가 회사를 나오려고 할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잊고 있던 사실이 떠오르는 경우에 쓰여진다. 이 경우 ‘저녁에 비가 내린다’ 라는 정보를 발화시에 처음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のだ」을 쓰지 않고 대신에 「のだった」을 사용한다. (38)에서도 오늘의 교실 분위기는 평상시의 수업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평상시의 수업분위기를 회상하면서 「のだ」의 과거형인 「のだった」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의 「のだった」의 예문을 살펴보자.

(39) この道はよく渋滞するんだった。

(庵 2003 : p286)

(40) 雨が降り出す前に会社を出るんだった。 (同 : p287)

(41) こんなことになるなら、もう少し貯金しておくんだった。 (同 : p287)

(39)~(41)의 경우와 같이 일찍 감치 했어야 했던 것을 하지 않고 후회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39)에서는 이 길을 이전에 왔던 사실이 있고,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잊고 이 길에 다시 빠지고 교통체증에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이고, (40)에서는 화자가 비가오기 전에 회사를 나와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뒤늦은 후회의 의미이며, (41)에서는 이전에 저금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후회의 의미로 말한 것이다. 이처럼 「のだった」 문에는 어떤 사실의 재인식의 용법과 더불어 과거에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후회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그렇지 못한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2.4 화제 제시¹²⁾

(42) インヒェ : あの、私、秋に日本へ行けるかも知れないんです。

メリー・スフィ : えっ、ほんとう!

インヒェ : 姉妹校への訪問があるんです。

清 : 日本のどこの高校と姉妹校なんですか。 (日本語Ⅱ:99)

(43) インヒェ: 韓国と日本は近いですね、習慣はすこし違うようだけど。

12) 庵 功雄 外(2003), 「中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 日本語文法」 p288

이에 대해서는 庵 功雄는 「先觸れ」로 표현하고 있다. 선행문에서 먼저 「のだ」문을 통하여 제시되고, 후행문과의 상황이나 문맥과의 관계가 있음을 사전에 암시하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お米を食べるのもおしょうゆやおみそを使うのも同じですね。

(日本語Ⅱ:140)

(44) 先生、お話があるんです。お部屋に伺っ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中級Ⅰ: p65)

(45) A : 実は私田中さんと結婚するんです。

B : それはおめでとう。

C : それで、先生に仲人を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

(初級 : p123)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자신의 새로운 사실 알리고 있다. (42)~(45)를 보면, 후속문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자매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거나, 일본과 한국의 음식문과가 다르다는 것, 선생님을 찾아뵙겠다는 것,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 등을 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사전 암시의 의미에서 화제제시용으로 선행문에서 「のだ」문을 사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のだ」문은 선행하는 문이나 상황에서 어떤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후행문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위의 (42)~(45)에서처럼 「のだ」문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표현을 <화제제시>라고 할 수 있다.

「のだ」문은 기본적으로 선행하는 문과의 어떤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のだ」를 포함한 문이 처음에 나타나면 청자나 독자는 그 문장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하면서 그 대상을 알고 후속문에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¹³⁾ 이것이 화제제시 용법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의미의 용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의외 등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무엇인가의 번거로운 일이나 신세를 지면

13) 庵 功雄 外(2003), 「中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 日本語文法」 p289

서 부탁할 때나 듣는 이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보자는 목적에서 사용되어진다.

2.5 명령, 인식강요

- (46) ほら、さっさと帰るんだ。 (庵 2001: p290)
- (47) 早く行くのだ。 (青木1999: p290)
- (48) 君は受験生なんだ。もっと勉強しなさい。 (庵 2003: p290)
- (49) だが、こうなったからといって、ねえ、フランツ、きみだけが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我々もみんな、非難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 (小6 : p99)
- (50) こんなに一生懸命勉強したんだ。試験に落ちるはずがないよ。
(庵 2001 : p290)

여기에는 (46)~(50)에서처럼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물론 (46)에서 ‘さっさと帰る’ 와 같이 「のだ」 문이 아닌 기본형만으로도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은 명령형이나 다름없는 직접적인 표현방법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밑에 사람에게만 사용하게 된다. 두 번째의 경우는 (48)~(49)에서처럼 듣는 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하고 상대에 대하여 격려나 비난 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50)에서처럼 독백으로 자기 자신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Ⅲ. 부정문 「のではない」

「のだ」의 부정문에 있어서도 형식상, 「のではない」「のじゃない」「んじゃない」처럼 여러 가지 변형된 형식이 있지만, 「のではない」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のではない」는 회화체나 문어체 어디서도 사용되지만, 「のじゃない」「んじゃない」는 기본적으로 회화체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のだ」의 부정형식인 「のではな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부정과 「のだ」의 표현 방식

긍정형식 「のだ」와 부정형식 「のではな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¹⁴⁾

内 外	무드의 긍정	무드의 부정
서술내용의 긍정	(a) するノダ	(b) するノデハナイ
서술내용의 부정	(c) しないノダ	(d) しないノデハナイ

위의 도식에 의하여 예문을 들어 그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자.

14) 工藤 真由美(1996), 「~のではない」の意味と機能, 人文紀要文学(横浜大)43.

여기서 のではない는 술어로서 동사는 물론 형용사, 명사에도 접속할 수 있지만 동사술어 「する」를 대표로 설명한다.

- (51) a (青君はまだ遅刻した。) またねぼうしたのだ。 (日本語Ⅱ : p69)
 b (青君はまだ遅刻した。) またねぼうしたのではない。
 (間違って電車に乗っちゃったのだ。)
 c (母が起きてくださった。) ねぼうしなかったのだ。
 d ねぼうしなかったのではない。(またねぼうしても遅刻はしなかったのだ。)

(51a)의 「する」와 (51c)의 「しない」의 대립은 서술내용의 성립 유무에 관련된 문제이고, (51b)의 「のだ」와 (51d)의 「のではない」의 대립은 그 서술내용에 대한 화자의 설명적 판단(무드(mood))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51c)의 「しない」와 (51d)의 「のではない」는 같은 부정이지만, 이 양자간의 부정의 기능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시말하면 「する—しない」의 대립이 현실세계에 있어서 어떤 사항이 성립하는가 아닌가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のだ—のではない」의 대립은 선행문 또는 발화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의 설명적 판단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위의 (51a)의 긍정문 「のだ」문에서는 지각한 이유로서 ‘또 늦잠을 잤던 것이다’라는 화자의 판단이 성립한 경우이다. 또 (51c)의 긍정문 「のだ」에 있어서는 엄마가 오늘은 일으켜주어서 그 이유로 ‘늦잠을 자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화자의 판단이 성립된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51b)의 부정문 「のではない」는 지각한 이유는 잘못알고 기차를 타버렸기 때문이지 늦잠자서 지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ねぼうしたのだ’라는 화자의 판단이 성립하지 않음(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51d)의 부정문 「のではない」에 있어서도 ‘늦잠을

자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즉, 늦잠은 자도 지각은 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ねぼろなかったのだ’ 라는 화자의 판단이 성립하지 않음(부적절함)을 나타낸 것이다.

3.2 「のではない」의 의미

3.2.1 포커스(focus)¹⁵⁾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52) 散歩に行くんじゃないですよ。墓参りに行きます。

(夏目:こころ)

(53) 「お前に聞いているんじゃない」 (野田 1997 : 36)

(52)의 「のではない」 문은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산책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묘하러 간다는 뜻으로 「んじゃない」의 부정의 대상 즉, 포커스가 ‘行きます’ 가 아니고, ‘散歩に’ 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53)에서도 「んじゃない」의 부정은 ‘聞いている’ 가 아니고, ‘お前に’ 이라는 사항을 포커스로 하기 때문에 듣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기는 한데 너한테 듣는 것은 아니더라는 뜻이 된다.

(54) a 「あたし、悲しいから泣いたんじゃないよ。」

15)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있어 어느 일정부분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화자가 그 외의 부분을 특별히 정하여 묻고 싶거나 부정하고 싶은 부분을 그 문의 포커스(focus)라고 한다. 예로서 何を買ったんですか。에서 「何を」가 포커스가 된다.

「……………」

「嬉しくて泣いたのよ。」

(野田 1997 : 35)

b * あたし、悲しいから泣かなかったのよ。

(54a)에서는 ‘(화자가)울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이유는 ‘슬프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또는 그 외의 이유로 울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のではない」의 부정은 ‘泣きました’가 아니고, 부정의 초점은 ‘悲しいから’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のだ」를 사용하지 않는 (54b)문에서는 의미상으로는 ‘(화자가)울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문이 되어버리며,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았을 때 어색한 표현이 되어 버린다.

3.2.2 「のではない」와 「のだ」의 대비성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55) 大蛇が人を喰ったんですか？

いいえ、あれは蛇が人を喰ったのではないよ。

人が蛇を喰ったのです。

(寺村 1984 : p306)

(56) 「とうさんはお前たちを悪くするつもりでいるんじゃないよ。お前たちをよくするつもり

で育てているんだよ。

(寺田:嵐)

(57) 藤次郎は最後の一線を越す勇気がなかったのではない、機会がなかったので

ある。

(浜野:夢)

(58) 特にあなたを信用しないんじゃない。

人間全体を信用しないんです

(夏目:こころ)

(59) いや考えたんじゃない。やったんです。やった後で驚いたんです。

(55)에서 「のではない」문은 ‘뱀이 사람을 잡아먹었다’ 라는 판단의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のではない」는 (55)의 「のだ」문 ‘사람이 뱀을 잡아먹었다’ 라고 단정하여 판단하는 표현과 대비된다고 하겠다.

(56)의 「のではない」문은 아빠가 너희들을 ‘나쁘게 하려고 한다’ 는 것을 부정하는 표현이다. 여기서 「のではない」는 (56)의 「のだ」문의 너희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단정하여 판단하는 표현과 대비된다고 하겠다.

(57)의 「のではない」문은 어떤 상황에 대해 ‘용기가 없었다’ 는 판단을 부정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のではない」는 (57) 「のだ」문에서 ‘기회가 없었다’ 라는 단정의 판단표현과 대비된다.

마찬가지로 (58)은 ‘당신을 믿지 못한다’ 라는 판단의 부정과 ‘인간 전체를 믿지 못한다’ 라는 단정판단과 대비되며, (59)은 ‘생각했다’ 라는 판단의 부정과 ‘실제로 행동했다’라는 단정판단과 대비된다고 하겠다.

(55)~(59)에서 보듯이 「のではない」는 「のだ」의 부정형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는 후행문에 「のだ」문이 오게 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떤 선행문에 대하여 「Aのではない」로 말하는 경우에 이는 기본적으로 담화구조에 있어서 화자의 입장에서 부적절한 판단을 바로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일반적으로 「のではない」의 구문은 담화에 있어서 그 선행문에 대하여 「のではない」라고 말한 후에는 부적절한 상황을 대신해야 할 또 하나의 적

절한 상황을 「のだ」의 형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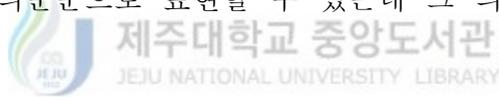
IV. 의문문 「のですか」

일반적으로 일본어의 의문문은 다음의 (60)에서처럼

- (60) aきのう、花子にあいましたか。 (益岡：p135)
b いつあの映画を見たか? (庵 2001：p267)
c あなた、明日の会議お出になる↑ (益岡：p135)

문말에 「か」를 붙이거나,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이거나, 상승(上昇)인토네이션을 씌으로써 의문의 뜻을 나타낸다.

또한 의문문은 「のですか」 의문문과 「のだ」가 없는 「(です・ます)か型」¹⁶⁾ 의문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의미상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 (61) a 彼は先生ですか? (庵 2001：p280)
b 彼は先生なんですか?
(62) a 田中さんは忙しいですか? (同)
b 田中さんは忙しいんですか?
(63) a 山田さんはあの映画を見ましたか? (同)
b 山田さんはあの映画を見たんですか?

(61)~(63)은 일본어의 의문문으로 술어가 각각 명사, 형용사, 동

16) 여기서 「(です・ます)か型」 의문문과 함은 「のですか」 의문문과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のだ」 의문문이 아닌 것을 말한다.

예시) とこへ行くんですか。 <のですか型> 의문문>

とこへ行きますか。 <(です・ます)か型> 의문문>

사로 끝나는 문인데, 여기에는 (61a)~(63a)의 문은 「のだ」가 없는 의문문이고, (61b)~(63b)의 문은 문말에 「のだ」의 형식이 덧붙여지면서 의문문으로 사용되는 「のですか」 의문문이다. 즉, 「ますか、ましたか、ですか、でしたか」로 끝나는 것과 「のですか、んですか、のか」로 끝나는 것 두 종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の(です)か型」 의문문¹⁷⁾은 「(です・ます)か型」 의문문의 「か」 앞에 「のだ」가 삽입되는 형식이다. 「のだ」 앞의 술어는 보통형으로 되고, 「の」는 회화체에서는 흔히 「ん」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에서는 「のですか」 의문문을 「のだ」가 없는 「(です・ます)か型」 의문문과 비교하면서 어떠한 의미상의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のですか」의 의미

4.1.1 술어가 동사인 경우의 「のですか」

의문문 「のですか」에 있어서의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64) a ? 田中さんはあの店でカメラを買いましたか。

b 田中さんはあの店でカメラを買ったんですか。 (庵 2000 : 281)

「ますか型」 의문문은 (64a)처럼 질문의 의도가 카메라를 샀는가

17) 「のですか」 의문문의 변형체로서 예를들면 書くのですか、書くのか、書くの 등으로 쓰여지기도 한다.

묻는 것이다. 그러나 (64a)는 질문내용으로 보아서 문장속의 ‘あの店でカメラを’의 문구와 서로 맞지 않아 문장 전체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그렇지만 「のですか」형 의문문인 (64b)은 타나카씨가 카메라를 샀다는 것은 화자는 물론 청자도 알고 있는 사실로 ‘저 가게에서’ 샀는지 어디에서 구했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인 것이다. 여기서 질문의 포인트가 무슨 제품인가 또는 매입처가 어느 곳인가에 대한 물음의 응답에 있어서는 질문시의 화자가 음성적으로 어느 부분에 더 강세를 두고 말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65) a 山田さんが来たんですか。

いいえ、彼が来たのではない。吉田が来たのです。

b 山田さんが来ましたか。

いいえ、来ませんでした。 또는 はい、来ました



(野田 1997 : 36)

(65a)는 ‘누군가가 왔다’는 것이 전제로 작용한다. 즉, 야마다씨가 왔는가 안 왔는가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の」의 문을 사용하여 누군가가 오기는 왔다는 전제아래 누가 왔는가를 물러보는 것이다. 만약에 타나카씨가 왔느냐 안왔느냐는 사실의 공부를 묻는 질문이라면 (65b)처럼 표현해야 할 것이다.

(66) a 佐々木さんは、タイで日本語を教えたんですか? (文化 : p72)

b ? 佐々木さんは、タイで日本語を教えましたか?

(66a)의 「のですか」문에서 보면 佐々木さんが 일본어를 가르쳤다는 것은 화자는 물론 청자도 알고 있는 사실로 가르친 나라가 태

국 또는 어느 나라에서 가르쳤는지 혹은 일본어 또는 영어를 가르쳤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이다. 그러나 (66b)을 보면 ‘教えましたか?’는 일본어를 가르쳤는가 아닌가를 묻는 질문인데 이는 문장 속의 ‘タイで日本語を’의 문구와 서로 맞지 않아 문장 전체로는 부자연스런 표현이 된다.

(67) 메리 : おいしい! このプルゴギ、美香さんが作ったんですか。

明 : いや、違うよ。味付けはインヒエさんのお母さんがしてくださったんだよ。

(日本語Ⅱ: p41)

위의 (67)는 美香さんが 불고기요리를 만들었나 아니냐의 여부(可否)를 묻는 단순한 의문문 ‘作りましたか’와는 달리 美香さんが 불고기요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처럼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이나 비법에 대하여 물어본 것이다.

(68) 인히에 : あっ、これ、パソコンですね。

인호 : 美香さんもパソコンが使えるんですか。

香 : いえ、ワープロはできるんですけど。

(日本語Ⅱ:26)

또한 (68)에서는 인호의 질문이 美香さんが 컴퓨터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사실을 물어보는 단순한 질문 ‘使えますか’와는 달리 컴퓨터가 있는 것을 보니 어느 정도로 컴퓨터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の(です)か型」 의문문과 「(です・ます)か型」 의문문은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のですか」 의미의 차이는 「のだ」 문의 구조상에서도 찾

아 볼 수 있다. 앞의 (64)의 예문은 ‘田中さんはあの店でカメラを買った+「の」+「ですか」’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형식명사「の」에 의해 ‘田中さんはあの店でカメラを買った’라는 앞부분의 문이 명사화된다. 따라서 「のですか」의 질문의 범위는 확장되면서, 초점은 샀다 사지 않았다는 의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사기는 샀다는 전제하에 카메라인지 컴퓨터인지 또는 저 상점에서 샀는지 백화점인지 등의 물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のだ」문의「の」의 기능에 의해 질문의 작용범위가 확장되고, 의미에 있어서도 무엇인가를 샀다는 사실이 그 전제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처럼 「のですか」의문문에 있어서 술어가 동사문인 경우에 그 의미는 어떤 사항이 일어난 것을 전제로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다.



4.1.2 술어가 명사, 형용사 경우의 「のですか」

(69) a 彼は学生ですか。

b 彼は学生なのですか。

(庵(2001): p289)

(70) 田中さんは頭が痛いのですか。

(庵(2001): p282)

(69a)는 단지 그가 학생이냐 아니냐를 묻는 의문문으로 이에 대한 대답은 ‘はい、學生です。(そうです)’라든가 ‘いいえ、學生ではありません。(違います)’이 될 것이다. 하지만 (69b)처럼 말했다면 이는 예를 들면 학생이 해서는 안 될 용모나 태도를 보면서 그도 학생이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 만약에 「のだ」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のだ」를 사용하면 듣는 이가 말한 선행내용이 의심스럽다는 의미가 내포하기도 한다.

(70)에서도 단순히 두통이 있는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田中さんが 이마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골치 아픈 일이 생겼는데 그 이유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 경우에 「のですか」를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のですか」의문문에 있어서 술어가 (69b)에서처럼 명사문, (70)에서처럼 형용사문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의미는 선행하는 문이나 문맥 또는 대화상의 상황에 대한 원인, 이유, 동기 등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지니면서 청자에게 물어보는 의문의 표현으로 사용하게 된다.

4.1.3 의문사가 있는 경우의 「のですか」

다음은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문 「の(です)か型」의 문의 예를 들어보고 「(です・ます)か型」의문문과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71) 山田 : 田中さんは何を見たのですか。 (庵 2000 : 285)

田中 : (X) はい、見ました。

(X) いいえ、見ませんでした。

(○) タイタニックを見ました。

(71)에서 의문사의문문에 대한 응답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의문사가 있는 「のですか」문에서는 ‘はい’ 나 ‘いいえ’ 로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이것들이 타나카씨가 뭔가를 보았다는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릇됨을 묻는 진위형의 의문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의문사 자체에 질문의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의문사의문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のだ」를 사용한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72)에서처럼

(72) 洋書関係の情報サービスを担当している女性はどなたですか。

(中級 I : p65)

의문사가 술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のだ」가 불필요하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73) a 何を見ましたか。

b 何を見たんですか。 (庵 2000 : 281)

(74) a どうましたか。

b どうしたんですか。 (中級 : p85)

(75) a どこへまりますか?

b どこへ行くのですか? (日本語 II : p93)

(76) a 何がほしい?

b 何がほしいの? (文化 : p91)

(73a)는 단순히 무엇을 보았느냐에 대한 의문문이다. 그러나 (73b)는 화자가 ‘무엇을 보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상대방의 얼굴표정이 놀람이나 태도가 경악스러워하는 사항에 대해 화자의 감정표시로서 ‘왜그러느냐’는 것을 「のだ」의 의문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74a) 는 사실로써 ‘어떻게 했느냐’ 등의 사실 자체의 정보를 알아 보려는 것에 대한 의문임에 반하여 (74b)는 대화하는 과정에서의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해 그 후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것이며, 문맥과 상황에서 화자의 염려와 놀람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무드 (mood)적인 표현으로 「のですか」를 표현하는 것이다. (75b)는 예를 들면 아파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딘가에 가려고 하는 상대방의 모양을 보고 ‘어디에 가는가’ 를 묻는 점에서 (75a) 처럼 표현되는 단순한 의문문과는 다른 것이다. 또 (76b) 는 방안에 들어와서 무언가 하고 싶은 듯이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한 표현인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단지 예를 들어 ‘올 겨울 졸업 선물로 무엇을 갖고 싶은가’ 라고 묻는 것 뿐이라면 「のですか」 문이 아닌 (76a) 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7) a どこへいきますか。

b どこへ行くんでか。

(日本語Ⅱ: p54)

(77a)는 단순히 행선지를 묻는 의문문임에 대하여 (77b)는 예를 들어 담화에 있어 상황의 전제로써 ‘어디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당신이’ 또는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딘가를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자는 행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문을 「のですか」의 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78) スフィ: あっ、来た来た。清君、こっちょ。

明 : おい、清、どうしたんだよ。だめだよ、みんなをこんなに待たせて。
清 : ごめん、みんな。おくれちゃって。 (日本語Ⅱ:68)

(78)에서도 단순한 질문인 ‘どうしましたか’의 표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묻기보다는 왜 이렇게 우리 모두를 기다리게 하다니 어찌된 일이냐는 것을 나타낸다. 담화 속의 정황에 대하여 표현한 「のだ」문이라고 볼 수 있다.

(79) 以前から繰り返し危険性が指摘されていたことについて、小泉首相がどのように考え、対策をどう講じてきたのか。 (朝日:04.2.04)

(79)에서도 수상이 위험 부담이 있는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는 사실 자체를 묻기보다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のですか」를 사용한 의문문은 청자에 대해 ‘どうしてなのか’ ‘なぜなのか’와 같이 화자가 현실의 상황에 대해 설명이나 해설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흔히 사용하는 ‘いつお歸りですか’ ‘何を買いましたか’와 같이 단순한 의문문의 경우에는 「のですか」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결국 위의 예문처럼 「のですか」문이 유발되는 데에는 어떤 상황을 인식하여 그것을 이해하려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분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현이다.

4.2 「のではないか」의 의미

「のではないか」의 형태는 「のではない」뒤에 「か」가 붙여진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의미상으로는 확실히 단정하지는 않지만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のではないか」의 형식에는 のではないですか ではありませんか んじゃないか んじゃないですか んじゃないませんか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변형이 있다.

여기서 편의상 「のではないか」를 IV장에 넣고 예문을 통해서 「のではないか」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80) 君、熱があるんじゃないか。 (安達1999 : P35)

(81) 明日は雨が降るんじゃないか。 (庵 2003 : p269)

위의 (80)에서 보듯이 화자는 청자에게 확실하게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생각으로는 열이 나서 아픈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1)에서도 のではないか의 표현에는 부정의문문처럼 말하는 이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지만, 듣는 이에게 물어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이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물어보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부정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 표현이 정중

하게 되는 것은 의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통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다.

(82) この答えは違うのではないですか。 (庵 2003 : p267)

위의 (82)에서처럼 のではない이는 자기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의문문과 같이 듣는 이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경우에도 쓸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のではないかと思う’ 등의 표현을 쓰면 이 보다 정중한 표현이 된다.

「のではないか」의 이와 같은 의미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의 예문을 제시하여 본다.



(83) そんな日が絶対来ないとも言い切れないのではないか。 (朝日 : 04.4.2)

(84) ムンクの「叫び」は最もよく知られる絵の一つだ。「洗濯」は難いだろう。闇に置いても声が聞こえてきそうな不気味な傑作を、犯人ももてあますのではないか。 (朝日 : 04.8.26)

(85) しかしその馴れない酒を飲んだという事と、間もなく潜水者病に罹ったこととの間に何かしら科学的に説明出来るような関係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 (読売 : 04.8.24)

(86) 国際化のためには、まず始めにこのような問題を見直すことが必要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 (中級 : p132)

(87) このごろは、(結婚して仕事を)やめないケースも多いんじゃないかなあ。主婦の半分は仕事をもってるって話だよ。 (中級 : P115)

(88) うん、もちろんマイナスの面もあるけど、プラスの面も大きいんじゃないかな。第

一、経済的に自立していれば、お互いに対等な関係でいられるんじゃない。

(中級：P115)

(83)~(88)에서 알 수 있듯이 Aのではないかの 의미는 명제 A의 진위가 확실하다고는 단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정의문문과 같이 A라는 명제가 사실이거나 또는 옳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듣는 이에 게 어떤 사실을 인식하게 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데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일본어에 있어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말형식(文末形式)의 하나로 「のだ」의 표현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のだ」문의 특성과 세부적인 의미를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のだ」문의 표현에 있어서는 비(非) 「のだ」문과는 달리 어떤 상황을 인식하여 그것을 이해하려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분으로 「のだ」문이 유발된다고 본다. 화자는 「のだ」문을 통하여 어떤 원인, 사정 등 화자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のだ」의 세부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자기주장, 해석, 원인, 이유, 환언, 발견, 재인식, 화제제시, 명령·인식강요 등의 다양한 것이 내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정문의 「のではない」의 의미로는 화자의 설명적 판단이 적절치 못함을 의미하며 부분부정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ではない」는 어떤 사항(명제)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부정을 나타낸다.

셋째, 의문문 「のですか」의 의미는 어떤 사태가 일단 일어난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그 상황이나 문맥과 관련시켜 그의 사정이나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에 나타나는 표현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のですか」의 의문문은 어떤 문장이나 담화과정에서의 상황이

나 선행문맥등과의 관련시키면서 그의 사정이나 의미를 물어보는 기능과 질문의 포인트를 확장시켜주는 기능이 있음을 예문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 또한 부정의문문의 「のではないか」의 의미는 어떤 명제의 옳고 그릇됨을 단정적으로 분명히 제시는 않지만 그 명제가 사실로 또는 옳다고 생각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담고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실을 인식시키려고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동의를 구하는데 사용되는데, 여기에 「ない」가 포함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参 考 文 献

<例文出典>

- 文化初級日本語Ⅱ(1991), 文化外国語専門学校 日本語科編, 東京 (文化)
日本語中級Ⅰ(1990), 国際交流基金日本語国際センター, 東京 (中級Ⅰ)
高教教科書(1992), 現代の国語1・2・3, 金田一春彦 外 27人, 三省堂, 東京
(高1・2・3)
中学校教科書(1993), 国語(1年-3年), 栗原一登 外27名, 光村図書 (中1・2・3)
小学校教科書(1993), 国語(4上-6下), 栗原一登 外27名, 光村図書 (小4・5・6)
時事日本語(1999), 李愛淑外 3人 共著, 韓国放送大学校 出版部 (時事)
日本語ペラペラ(続)(2003), 李徳奉 外 3人, 教育人的資源部, 서울
(ペラペラ)
日本語Ⅱ(2000), 李賢起 李漢燮 共著, 進明出版社, 서울 (日本語Ⅱ)
寺田寅彦 嵐 青空文庫 (인터넷 공개자료에서) (寺田:嵐)
浜野四郎 夢の殺人 青空文庫 (인터넷 공개자료에서) (浜野:夢)
夏目漱石 こころ 青空文庫 (인터넷 공개자료에서) (夏目:こころ)
朝日新聞 毎日新聞 読売新聞 (朝日, 毎日, 読売)

<外国文献>

<단행본>

- 田野村忠温(1989), 「『のだ』の意味と用法」, 『現代日本語の文法』, 和泉良書

- 阪田雪子・倉持保南(1982),「文法Ⅱ(助動詞を中心にして): 教師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④」, 国際交流基金
- 野田春美(1997),「「のだ」の機能」, くろしお出版.
- 久野暲(1979),「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 寺村秀夫(1984),「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くろしお出版.
- 益岡隆志・田窪行則 (1992),「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 庵 功雄 (2001),「新しい日本語学入門:ことばのしくみを考える」,
- 庵 功雄 外(2003),「中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
エーネットワーク.
- 安達太郎(1999),「日本語疑問文における判断の諸相」, くろしお出版.
- 仁田義雄 (1995),「複文の研究(下)」, くろしお出版.
- 仁田義雄 外(1997),「複文」, 「新日本語文法選書2」, くろしお出版.
- 永野賢(1951),「現代語助詞・助動詞-用法と実例」 秀英出版
- 重見一行(1996),「日本語の文法を考える」, 和泉書院
- 益岡隆志(1989),「日本語の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 森山卓郎 外(2000),「モダリティ」, 日本語の文法3, 岩波書店

<事典類>

- 日本語教育学会 編(1892),『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 日本語大事典(1992), 講談社
- 新村出 編(1998),『広辞苑』, 第五版, 岩波書店

<論文>

- 青木惣一(1993),「「のだ」文の基本的意味をめぐる諸説の検討と今後の課題」,ア
メリカカナダ聯合日本研究センター紀要8.
- 山口佳也(1982),「のだ」の文について, 論集日本語研究7(助動詞)」, 有精堂
- 小金丸春美(1990),「作文における「のだ」の誤用例分析」, 日本語教育学会

(1990,7月)

- _____ (1990), 「ムードの「のだ」とスコープの「のだ」」, 日本語学vol.9(3月号), 明治書院.
- _____ (1990), 「作文における「のだ」の誤用例分析」 『日本語教育71号』, 日本語教育学会.
- 野田春美(1995), 「～ノカ?、～ノ?、～カ?、～Ø? —質問文の文末の形—」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上)』, くろしお出版
- 渋谷倫子(1996), 「もう一つの現実を表す「の」」, 日本語教育91号, 日本語教育学会.
- 奥田靖雄(1990), 「説明(その1)—のだ, のである, のです—」, 『ことばの科学』, 言語学研究会論文集, むぎ書房.
- 工藤真由美(1996), 「「～のではない」の意味と機能」, 人文紀要文学(横浜大)43.
- 牧原 功(1995), 「疑問表現における「の」の機能の一側面, -前提と関わりを中心に—」, 日本語と日本文学6(筑波大).
- 酒井悠美(1996), 「会話文における「のだ」」, 横浜大留学センター紀要3.
- 衛 東(1990), 「日本語のムード表現の一形式」, -「のだ」文を中心に—, 国文学論集25(上智大)
- 高梨 克也(1998), 「「のだ」の表す命題間の関係と課題設定」, DYNAMIS, 1, 42-58.
- 渋谷倫子(1996), 「もう一つの現実を表す「の」」, 『日本語教育』(91号), 日本語教育学会.
- 小林ミナ(1993), 「疑問文と質問に関する語用論的考察—特にそのスコープと焦点について—」, 『言語研究』(104), 日本言語学会.
- 田野村忠温(1988), 「否定疑問文 小考」, 『国語学』(152), 国語学会.
- 安達太郎(2002), 「疑問文とモダリティの関係」, 『日本語学』(2月号), 明治書院.
- 田野村忠温(1993), 「「のだ」の機能」, 『日本語学』(10月号), 明治書院.
- 山崎城(1990), 「否定の焦点について」, 『日本語学』(12月号), 明治書院.
- 宮崎和人(2001), 「認識的モダリティとしての〈疑い〉 —「ダロウか」と「ノデハナイか」—」, 『国語学』(第52巻3号), 国語学会.

<韓国文献>

<論文>

劉明洙(2002), 「日本語の文末表現「のだ」에 관한 一考察」,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李朱利愛(2000), 「「のだ」의機能分析と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
학원 일어일문학과 일어학전공.

金英周(2000), 「현대일본어의 「のだ」의 문법적인 기능에 대하여」, 경북
대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일본어학전공.



<Abstract>

- A Study on 「noda」 Sentence Structure -

Lee Jae-hong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Kim Seung-han

There is an expression '*noda*' as one of sentence styles that is usually used at the end of a sentence in Japanese. This paper is designed for studying the characteristic of a '*noda*' sentence and its detailed meaning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ression of a '*noda*' sentence is different from that of a '*non-noda*' sentence. A '*noda*' sentence is generated with the intention that after recognizing a certain situation, a speaker will understand it, or make it understood. It can be said that a speaker expresses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reasonable grounds including cause or circumstance and his present situation, by using a '*noda*' sentence which is an expression style of a language. Therefore, it can be found out that *noda's* detailed meaning involves various things such as self-assertion, interpretation, cause, reason, restoration, discovery, new recognition, presentation of topics, and enforcement of order recogni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5

Second, the negative sentence '*nodewanai*' is used to express the inappropriateness of a speaker's explanatory judgement, or the negativeness of some contents except a predicate, that is, a partial negative. However, the expression '*dewanai*' means that some preposition will not be materialized, and it means a complete negative.

Third, the interrogative sentence '*nodesuka*' is a kind of a sentence style, which is used in the case that after admitting that some affair has happened, someone asks its meaning or its situation in relation to the state and the context. In addition, the interrogative sentence '*nodesuka*' is different from the simple one '*(desu • masu)ka*' in expressing an interrogation. It is used when someone asks its meaning or its situation in relation to the state and the preceding context while discoursing, and when someone intends to expand the point of a question. This case can be recognized in its good example sentences. Besides, even if the negative interrogation '*nodewanaika*' doesn't present clearly whether some preposition is right or wrong, it expresses that the preposition can be regarded or accepted as right with a speaker's subjective thought. Therefore, it is used when someone intends to ask for other's recognition or agreement. Though there is the expression '*nai*' in the sentence '*nodewanaika*', the preceding content is not considered as negative.